

# 거시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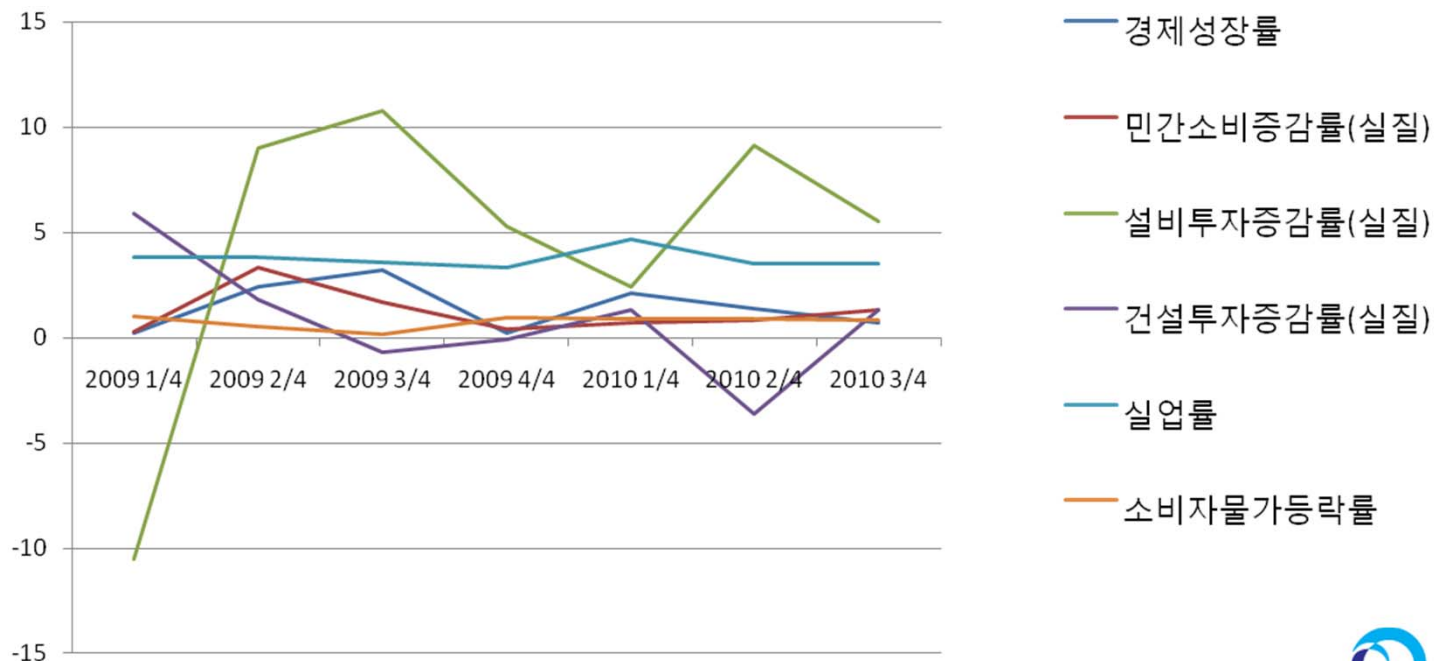
국제금융실장 김 한 수



# 2010년 국내경제는 수출/내수 동반 고성장

## ❖ 상반기 이후 성장세 완화; 연평균 6%대 성장 (예상)

- 상반기 중 전년동기 대비 7.6% 성장을 기록하는 등 예상치를 웃도는 성장세 기록; 수출(20%대 후반), 설비투자(23%대) 부문에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
- 하반기 이후 경기 반등효과, 경기부양 효과 등이 소멸하는 경기 정상화 과정에 진입 하면서 회복세는 둔화



# 2011년 순환적 성장세 지속; 성장속도는 둔화

❖ 기저효과 소멸, 원화 강세 등으로 인한 수출 증가세 둔화로 성장 속도 둔화되나, 내수부문 성장기여도 확대로 4%대 성장세 예상

<도표: 주요기관 2011 경제 성장률 전망>

주요 IB		국내기관		국제기구	
Barclays Capital	4.0	한국은행	4.5	OECD	4.3
Citigroup	4.3	기획재정부	5.0	IMF	4.5
UBS	3.5	국회예산정책처	3.9	ADB	4.6
Deutsche Bank	3.9	한국개발연구원	4.3		
Goldman Sachs	4.2	삼성경제연구소	3.8		
JPMorgan	4.0	LG 경제연구원	4.0		
Morgan Stanley	4.5	하나금융경영연구소	4.1		
Nomura	3.5				
평균	4.0		4.2		4.5

# 경제 부문별 전망 (1/2)

## ❖ 민간소비: 완만한 증가세 유지

-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의 급격한 회복세는 2010년 1/4분기를 정점으로 정상세로 복귀 하였으나, 꾸준한 가계 구매력 증대, 주식시장 회복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 유지 전망
- 소득대비 高 가계부채, 주택시장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 상존

## ❖ 설비투자: 성장세 지속되나 증가세는 둔화

- 2010년 하반기 이후 기계류 투자 중심으로 증가세 확대(2010년 3/4분기 35.2% 성장 기록)
- 기업수익 호전, 주력업종의 성장세 지속, 높은 가동률 수준 등으로 기계류 투자 중심으로 성장세 지속되나, 경기상승 속도 둔화,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증가세는 둔화

## ❖ 건설투자: 부진 지속

- 4대강 사업 등 공공부문 토목투자 지속되나, 불확실한 중장기 주택시장 전망, 미분양물량 적체 등으로 민간주택건설 부진 지속

## 경제 부문별 전망 (2/2)

### ❖ 대외부문: 경상수지 흑자 지속 예상; 흑자폭은 대폭 감소

- IT, 자동차 등 수출 상승세 유지하나 세계경제 성장속도 둔화로 인한 대외수요 감소, 원화 절상기조 등으로 수출증가세는 저하
- 국내경기회복, 유가 상승 등으로 더불어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
  - 유가 10% 상승 시 경상수지 20억 달러 / GDP 0.2% 감소

### ❖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 경기회복세 지속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 수입물가, 공공요금 인상, 집세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되나, 상승률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 ❖ 고용: 고용확대 속도 소폭 둔화

- 2010년 제조업 호조에 따른 고용확대는 2011년 수출증가세 둔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폭이 소폭 둔화되나, 견실한 내수증가세에 힘입어 3%대 실업률 유지

## ❖ 세계경제 회복기조 둔화

- 선진국 경기 부진, 개도국 주도 성장 한계,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2010년 보다 성장세 하락
  - 미·유럽·일본 등 주요국의 재정적자 확대로 재정적 여유 전무
  - 미국\* 2.3%, 일본 1.5%, 유로 1.5% 성장 전망 (IMF)
    - \*미국은 재정/통화 확장정책의 연장으로 더블딥 가능성 축소
  - 중국 9.6% 등 신흥국 평균 5% 대 성장 예상 (IMF)

## ❖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유지 전망

- 그러나 유로 재정위기 향방, 환율 분쟁 재발 가능성 등 불확실성 상존

## ❖ 원/달러 환율 완만한 하락기조 유지

- 글로벌 달러화 약세,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해외자금 유입 지속 등으로 하락기조 지속

# 유로존 재정위기 항방

## ❖ 남유럽5국(PIIGS)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 국채만기 도래액은 2011년에 집중; 스페인, 이탈리아의 3월 중 상환 발행 물량은 4,000억 유로 수준
- 거대경제인 스페인 등 위기발발 시 전 유로지역으로 확산 가능성; 유로 내 은행들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1조 유로 이상 자산 보유
- 재정위기 확산 시 위험 가능성 증대: 스페인 예상 지원규모는 3,500억 유로 수준

## ❖ 그러나, 유동성 위기 발발 가능성 적음

- 각국 재정건전화 계획이 IMF 등의 요구속도에 대체로 부합
- 유로존 재정안정기금 확충 가능성 高 (현 4,400억 유로)

## ❖ 유로체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 위기국가 부채상환 능력의 근본적 제고 어려움
- 채무조정 논의 등에 있어 회원국 갈등 증가

# 환율분쟁 재발 가능성

## ❖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 해소 필요성에 동조

-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간 경상수지 불균형, 저축/소비의 불균형이 지속

## ❖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경기회복, 신흥국의 환율 안정성 확보 등으로 인한 경쟁적 환율분쟁이 확산 가능

-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신흥국의 상대적 고성장세로 인한 급격한 해외 자본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자본규제조치의 실시 확산 우려
  - 미국 추가 QE 가능성 시사; 중국 위안화 절상폭 5% 이내
  - 브라질 재무장관 환율문제 WTO 의제로 확대필요 발언(FT, 2011.1.10)
  - 남미 최대자유무역지구인 칠레의 외환시장 개입 필요성 발언

## ❖ 2011년 G20 의제로 선정되면서 심각한 대립 가능성 일단락; 국제적 공조 가능성 확대

- IMF는 최근 자본유출입 규제 실시에 대한 국제적 규범/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2011.1.10)